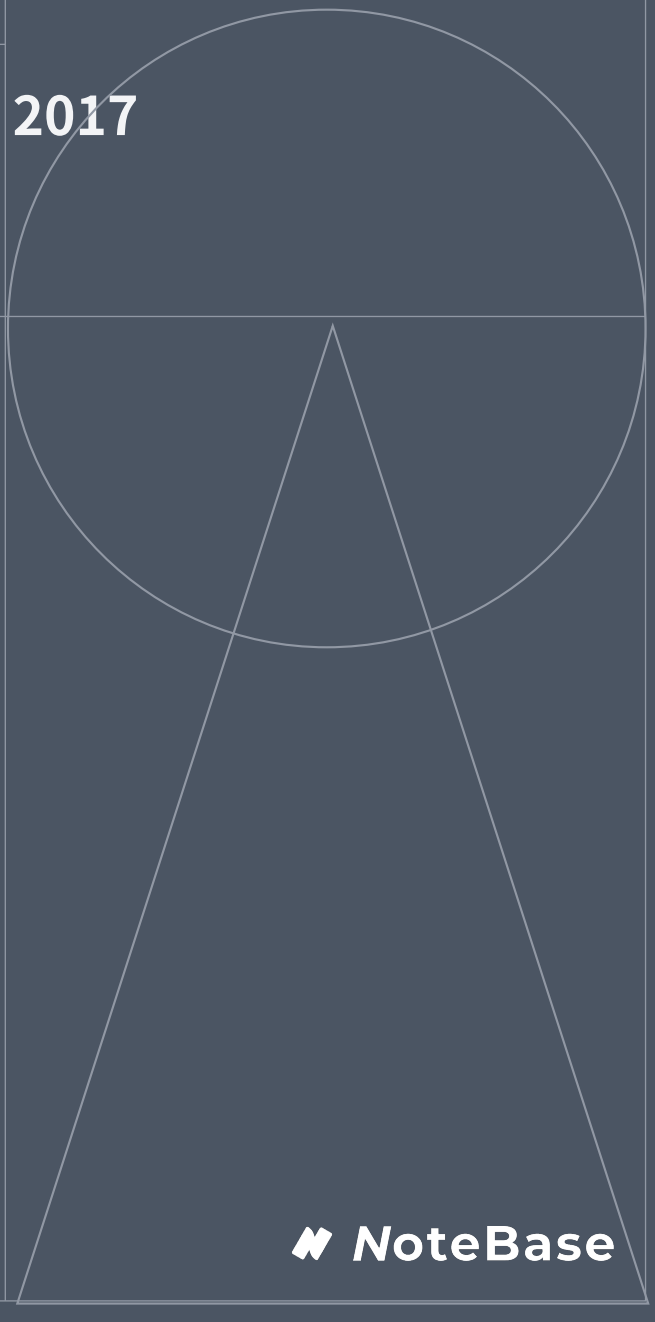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7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7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퍼레서'는 **'퍼렇다'의 'ㅎ' 불규칙 활용형**이다.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고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함께 바뀌어 '퍼렇- + -어서 → 퍼레서'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퍼레서'의 기본형은 '퍼렇다'이다. '퍼렇다'는 **'ㅎ'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어미 '-어서'가 붙으면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고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함께 바뀌어 '퍼레서'가 된다.

② X: 뱀이 몸을 둥글게 말아 놓은 모양을 뜻할 때는 '또아리'가 아니라 **'똬리'**로 쓴다. 이 뜻에서는 본말인 '또아리'보다 준말인 '똬리'가 널리 쓰이므로 준말만 표준어로 삼는다.

③ X: '머릿말'은 **'머리말'**로 고쳐야 한다. '머리'와 '말'이 결합한 말이지만, [머리말]로 발음하여 'ㅁ' 앞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X: '잠궈야'는 **'잠가야'**로 고쳐야 한다. 기본형이 '잠구다'가 아니라 '잠그다'이며, 어간 '잠그-'에 어미 '-아야'가 붙으면 'ㅡ'가 탈락하여 '잠가야'가 된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자신을 소개할 길이 트이다**라는 뜻이다. 문장에서는 몇 달 만에 상대편을 만날 기회가 마련되었음을 나타낸다.

공통 해설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인다는 뜻의 관용구이다. 이 문장에서 '몇 달 만에야'와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는 표현은 상대편과의 만남이 어렵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밑줄 친 말은 **자신을 소개하여 상대편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의미로 쓰였다. 남의 말에 곧바로 이어 말하는 행동이나 어떤 말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재미를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NoteBase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쌈: 바늘 (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 개

① 80
② 82
③ 90
④ 94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바늘 한 쌈은 24개, 탕약 한 제는 20첩, 오이나 가지 한 거리는 50개를 뜻한다. 빈칸에 들어갈 수를 더하면 **24 + 20 + 50 = 94**이다.

계산 과정

쌈: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로, **바늘 24개가 한 쌈**이다. 첫 번째 빈칸에는 24가 들어간다.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탕약 20첩이 한 제**이다. 두 번째 빈칸에는 20이 들어간다.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오이나 가지 50개가 한 거리**이다. 세 번째 빈칸에는 50이 들어간다.

합산: 구하는 것은 물건의 총개수가 아니라 **세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다. 따라서 24 + 20 + 50 = 94이며, 이는 ④의 94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담장 위에서 **떨어지는 살구꽃**의 쓸쓸한 모습에는 시름에 잠긴 화자 자신의 모습이 겹쳐 있다. 화자는 이 꽃을 통해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공통 해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드러내게 하는 매개이다. 이 문항에서는 그중에서도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를 찾아야 한다. 쓸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화자는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라고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뒤,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라는 장면을 제시한다. 이때 ㉣ '杏花(살구꽃)'가 떨어지는 모습은 **시름에 잠긴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겹쳐진다. 화자는 떨어지는 꽃에 자신을 비추어 외로움과 쓸쓸함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타낸다.

㉠ '春雨(봄비)'는 서쪽 못을 어둑하게 하는 배경이며, ㉡ '羅幕(비단 장막)'은 찬바람이 스며드는 대상이고, ㉢ '☒風(병풍)'은 화자가 몸을 기대는 대상이다. 이들은 화자가 놓인 주변 상황을 보여 주지만, 이 시에서 화자 자신의 쓸쓸한 모습과 겹쳐 제시되는 소재는 떨어지는 살구꽃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 너머 셩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투고
> 아히야 네 권농 겨시냐 뎡좌슈(鄭座首) 왓다 ᄒᆞ여라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언치 노하'는 소의 등에 깔개를 얹는다는 뜻이다. 안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언치만 얹어 타는 모습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한 태도**와 술을 즐기러 서둘러 가는 흥겨움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성 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를 타고 찾아가는 모습에서, 이웃과 술을 나누며 즐기는 **소박한 전원생활의 흥취**가 드러난다. 거창한 준비 없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모습이므로 소박한 풍류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박차'는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키는 동작을 나타낸다. 가만히 누워 있던 소를 일으켜 타고 가는 **힘찬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역동성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③ X: '언치'는 말이나 소의 안장 밑에 까는 방석이나 담요 같은 깔개이고, '노하'는 '놓아'라는 뜻이다. 이 시조에서는 소의 등에 안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언치만 얹어 타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가 아니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탈한 태도**와 술자리를 향해 서두르는 흥겨운 마음을 드러낸다.

④ O: 화자는 아이에게 성 권농이 있는지 묻고 자신이 왔다고 전해 달라고 한다. 따라서 '아히'는 **화자의 말을 성 권농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이다. 또한 '아히야'라고 부르는 말은 흥겨운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적 어구이며, 이어지는 질문과 부탁을 통해 실제로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를 이끈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① ㉠: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② ㉠: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③ ㉠: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④ ㉠: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장광설의 '설'은 **혀 설(舌)**을 쓰며, 유언비어는 **流言蜚語**로 적는다. 잘못에 대해 구실을 대는 '변명'은 **辨明**이므로, 소리가 같은 說·非·辯에 주의한다.

대응 관계 해설

㉠ 장광설: '長廣舌'로 적는다. 長은 '길 장', 廣은 '넓을 광', 舌은 '혀 설'이다. 문장의 '지루한'과 관중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에서,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말과 관련된 단어이지만 '말씀 설(說)'이 아닌 **혀 설(舌)**을 쓴다.

㉡ 유언비어: '流言蜚語'로 적으며, 확실한 근거 없이 퍼진 소문을 뜻한다. '유언비어가 떠돈다'는 것은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다는 뜻이다. '비'는 **非가 아니라 蜚**이므로 '流言非語'는 잘못된 표기이다.

㉢ 변명: '辨明'으로 적는다. 문장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辨은 '분별할 변', 明은 '밝을 명'이다. 말로 까닭을 설명한다고 해서 '말씀 변(辯)'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변(辨)**을 쓴다.

㉠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을 모두 바르게 대응시킨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뜻이다. 여러 측면을 두루 따져 본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山中에 冊曆도 없이'에서 공간적 배경이 산중임을 알 수 있다. 책력은 달력을 뜻하며, 산속에서 달력도 없이 지내는 노주인의 모습과 겨울 풍경은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O: 불의 '붉고', 무순의 '파릇하고', 겨울 풍경의 '하이얗다'가 서로 다른 색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붉은색·푸른색·흰색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대조가 이루어진다.

③ O: 붉게 피어나는 불, 파릇하게 돋은 무순, 하얀 겨울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감정을 직접 토로하기보다 **사물의 모습과 색채를 중심으로 장면을 제시**하여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적 인상을 준다.

④ X: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뜻이다.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는 문맥에서도 한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고려하다'라는 풀이는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① [주체−], [객체+], [상대−]
② [주체+], [객체−], [상대+]
③ [주체−], [객체+], [상대+]
④ [주체+], [객체−], [상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꽃다발을 받는 선생님을 '께'와 '드리다'로 높였으므로 **객체 높임**이 쓰였다. 행동 주체인 '나'는 높이지 않았고, 듣는 사람인 숙희에게는 반말체로 말한다.

구성 요소별 해설

주체 높임: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꽃다발을 드린 주체는 '내가'의 '나'이며, 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주체−]**로 표시한다.

객체 높임: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꽃다발을 받는 대상은 '선생님'이다. 부사격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써서 **행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였으므로 [객체+]로 표시한다.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더라도 문장의 주체는 아니므로 주체 높임과 구별한다.

상대 높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숙희야'라고 부른 숙희이다. '드렸다'는 해요체인 '드렸어요'와 달리 **반말체의 종결 표현**이므로, 제시된 규칙에 따라 [상대−]로 표시한다.

세 요소를 합하면 [주체−], [객체+], [상대−]이며, 이는 ①의 표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 글에서 칸트는 미를 외부 맥락과 구별되는 **자율적인 가치**로 보는 입장이다. 시어와 운율처럼 작품 자체를 이루는 요소에 주목하는 감상 태도가 이에 부합한다.

공통 해설

이 글은 칸트를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인물로 제시한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예술의 아름다움을 사회적 목적이나 외부 상황에 종속시키지 않고, **작품 자체의 특성과 가치**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지문에서 곡의 배경을 몰라도 그 곡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시의 정제된 시어와 운율은 시를 이루는 언어와 형식의 특성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시를 감상한다는 견해는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입장에 부합한다. 반면 사회의 모순 고발과 개혁의 전망은 시의 사회적 역할을, 시인과의 대화를 통한 정서적 성장은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시한다.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견해는 감상의 조건으로 작품 밖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요구한다. 이들은 모두 **작품 외부의 목적·효과·맥락**에 주목하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칸트의 자율적 관점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① ㉠: 심심풀이

② ㉡: 안잠

③ ㉢: 몰매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을 뜻한다.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므로, 잠자는 자세를 나타내는 '새우잠'의 풀이로 알맞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 '파적'은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심풀이'로 풀이할 수 있다. 한창 바쁜 추수 때라는 문맥에서는 농군이 심심풀이로 송이를 하러 나올 겨를이 없다는 뜻이다.

② X: ㉡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불편하게 자는 잠**이다. 남의 곁방에서 지내며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뜻하므로, '새우잠'의 뜻은 '안잠'이 아니라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난장'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매**를 뜻하므로 '몰매'로 풀이할 수 있다. 지문에서도 '맞을'과 함께 쓰여 매를 가리킨다.

④ O: ㉣ '사관'은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양쪽 팔꿈치 두 곳과 양쪽 무릎 두 곳을 가리키므로 제시된 풀이가 알맞다.

NoteBase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내히 죠타 ᄒᆞ고 놈 슬흔 일 ᄒᆞ지 말며
> 놈이 ᄒᆞᆫ다 ᄒᆞ고 義 아니면 좃지 말니
> 우리ᄂᆞᆫ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종장의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에는 **천성을 지키며 타고난 대로 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타고난 성품을 따른다는 뜻의 '率性(솔성)'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率性(솔성)'은 **타고난 성품을 따름**이라는 뜻이다. 이 시조의 주제는 행동의 기준을 천성에 두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이다.

초장은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이 싫어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중장은 남이 하는 일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고 한다. 두 구절은 자기 욕심이나 타인의 행동에 휩쓸리지 말라는 뜻이며, 종장은 그 대신 따라야 할 기준을 밝힌다. '天性을 직희여'는 천성을 지킨다는 뜻이고, '삼긴 대로'는 타고난 대로라는 뜻이다. 따라서 천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종장의 다짐이 앞의 가르침을 아우른다.

주제를 가르는 기준은 **삶의 근본 기준으로 천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람을 잘 사귀는 일, 법을 지키는 일, 학문에 힘쓰는 일은 이 시조가 중심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아니다. 시조 전체의 지향은 천성을 따르는 삶인 '率性'으로 집약된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단하게 되었다.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깨단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을 어떤 실마리로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사업 실패의 원인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문맥에 맞게 쓰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뉘연히'는 비표준어이므로 **'버젓이'**로 고친다. '버젓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다는 뜻이다. 큰 죄를 짓고도 대중 앞에 거리낌 없이 나서는 모습을 나타낸다.

② X: '뒤어내고'는 **'뒤져내고'**로 고친다.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낸다는 뜻의 표준어는 '뒤져내다'이다. 양념을 찾아내고 있다는 문맥이므로 '뒤져내고 있었다'로 쓴다.

③ O: **'깨단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떤 실마리로 깨닫거나 분명히 안다는 뜻의 동사이다.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깨단하게 되었다'는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한 표현이다.

④ X: '허구헌'은 **'허구한'**으로 고친다. 기본형 '허구하다'는 날이나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어간 '허구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으면 '허구한'이 되므로 '허구한 날'로 써야 한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일조에'는 '아주 짧은 동안에'라는 뜻이므로 **일조(一朝)**로 써야 한다. '일조(日照)'는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확집(確執)'은 자기의 주장을 굳게 고집하는 것을 뜻한다. 確은 '굳을 확', 執은 '잡을 집'으로, 이 글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태도**를 나타낸다.

② O: ㉡ '위의(威儀)'는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를 뜻한다. 威는 '위엄 위', 儀는 '거동 의'로, 지조가 교양인의 **품위 있는 태도**를 지키는 데 값지다는 문맥에 맞는다.

③ O: ㉢ '강도(强度)'는 강한 정도를 뜻한다. 强은 '강할 강', 度는 '법도 도'로, 여기서는 **지조를 얼마나 굳세게 지키는가**를 나타낸다.

④ X: ㉣ '일조(日照)'의 日은 '날 일', 照는 '비칠 조'로,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뜻한다. 이 문장은 동지와 지지자, 추종자를 아주 짧은 동안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一(한 일)과 朝(아침 조)를 쓰는 **'일조(一朝)'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흐드러지게'는 부사어로 쓰였지만 품사는 **형용사**이다. '없는'도 어미 '-는'이 붙었다고 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없다'의 활용형**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활용한 용언은 기본형을 확인하여 품사를 판단한다. 부사어·관형어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인 문장 성분이며, 부사·관형사라는 품사와 구별된다.

㉠ 흐드러지게: 형용사 '흐드러지다'의 어간 '흐드러지-'에 어미 '-게'가 붙은 활용형이다.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핀'을 꾸미는 **부사어로 쓰였지만 품사는 형용사**이다.

㉡ 찍은: 동사 '찍다'의 어간 '찍-'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활용형이다. 사진을 찍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사진'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여도 관형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 설레는: 동사 '설레다'의 어간 '설레-'에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은 활용형이다. 마음이 들떠 두근거리는 것을 나타낸다. 감정과 관련된 말이지만 **'설레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 충만한: 형용사 '충만하다'의 어간 '충만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활용형이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없는: 형용사 '없다'의 어간 '없-'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은 활용형이다. 여기서는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없다'는 형용사이면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므로, 어미의 모양만으로 동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용사인 ㉠·㉣·㉤을 묶은 것은 ②이다. ㉡과 ㉢은 동사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상 과학은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과 이론의 핵심 부분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문제를 깊이 탐구하며 지식을 확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정상 과학의 연구가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여러 상반된 학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키며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는 시기이다.

② O: 지문은 정상 과학의 시기에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고 명시한다. 패러다임이 정착하여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핵심 이론을 토대로 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③ X: 패러다임이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는 부분은 지문과 부합한다. 그러나 지문은 정상 과학이 완성된 과학이 아니며, 패러다임의 정착도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이 아니라고 밝힌다. 따라서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는 잘못이다. 후속 연구는 지식을 확장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④ X: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묻는 대목은 그것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지문은 그 물음에 '수수께끼 풀이'로 답한다. 결과가 예측되어도 **그 결과가 실현되는 세세한 과정은 밝혀야 한다**. 과학자들은 기기적·개념적·수학적 방법으로 예측과 실제 현상을 일치시키는 문제를 풀며 연구에 몰두한다.

NoteBase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② ㉡: 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의 '잡다'는 시계를 **담보로 맡아 두다**라는 뜻이다. 수량이나 정도를 대강 짐작하는 '어림하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유의어는 뜻이 비슷한 말이다. 여러 뜻을 지닌 '잡다'는 각 예문의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O: ㉠의 '돼지를 잡아'는 잔치에 쓸 고기를 마련하려고 **돼지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표의 '죽이다'와 의미가 통한다.

② O: ㉡의 '멱살을 잡고'는 상대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다**라는 뜻이다. 표의 '쥐다'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③ X: ㉢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는 술값을 받기 위해 시계를 **담보로 맡아 두었다**라는 뜻이다. 시계의 값이나 술값을 대강 짐작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어림하다'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예문의 유의 표현은 '담보로 맡다'이다.

④ O: ㉣의 '불길을 잡았다'는 번지는 불의 기세를 누그러뜨려 **진압했다**라는 뜻이다. 표의 '진압하다'와 의미가 통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둘째 문단은 조간대 중부가 물에 잠기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는 환경을 설명하지만, **중부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문단에 나오는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는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에 사는 생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O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X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뜻한다.

① O: 셋째 문단에서 총알고둥류와 따개비가 발견되는 곳은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이라고 했다. 둘째 문단의 높이에 따른 구분과 연결하면 조간대 상부에 해당하므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을 알 수 있다.

② X: 둘째 문단은 중부가 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공기 중에 노출되며, 물이 빠져도 파도로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중부의 환경에 관한 정보**이며 그곳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아니다. 셋째 문단의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도 중부 생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글만으로 중부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는 알 수 없다.

③ O: 셋째 문단 첫 문장은 생물들이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문단에서 높이에 따라 물에 잠기는 정도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조건이 다르다고 했으므로,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수직 분포의 이유임을 알 수 있다.

④ O: 첫째 문단에 조간대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물속과 공기 중이라는 상반된 환경**, 파도의 파괴력, 빗물이 고여 생기는 민물 환경,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한 뒤 몸에 염분이 남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개요는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의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이다. 주제문도 이러한 분석 대상과 개선 방향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NoteBase

공통 해설

주제문은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글쓴이가 말하려는 바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개요에 맞는 주제문이 되려면 **본론의 분석 범위와 결론의 제안 방향**을 함께 담아야 한다.

이 개요는 서론에서 수출 실적 부진을 제시하고, 본론에서 제조 원가 상승·고금리·환율 불안정이라는 가격 경쟁력 요인과 연구 개발 소홀·품질 개선 부족·판매 후 서비스 부족·납기 지연이라는 비가격 경쟁력 요인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장이 개요 전체의 내용을 포괄한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는 문장은 개요에서 특정하지 않은 지원 주체와 수단에 초점을 맞춘다. 내수 시장 기반 강화를 주장하는 문장은 수출 경쟁력이라는 중심 대상에서 벗어난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투자와 품질 향상을 강조하는 문장은 본론의 **비가격 경쟁력 요인 중 일부**만을 다루므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납기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NoteBase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당신'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한 **할머니를 높여 다시 가리키는 말**이다.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도 할머니의 심정이므로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그쪽'은 물건을 맡아 달라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가리키므로 **2인칭 대명사**이다. ㉢의 '저'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이다. 두 말이 모두 1인칭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X: ㉡의 '우리'는 '우리 할머니'라는 표현에서 할머니가 **화자 쪽과 관계있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가 ㉢의 '저'와 ㉣의 '할머니'를 한데 묶어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할머니' 전체가 가리키는 대상과 그 안의 '우리'가 가리키는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③ O: ㉣은 화자의 할머니를 가리킨다. ㉦의 '당신'도 앞 문장의 할머니를 높여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할머니가 말씀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에 이어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 심정의 주체 역시 할머니이다.

④ X: ㉤의 '본인'은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이라는 문장에서 생각의 주체인 **할머니 자신**을 가리킨다. 반면 ㉥의 '당신'은 할머니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는 **듣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두 말의 지시 대상은 서로 다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그러나'는 동물도 인간처럼 의사를 교환하는 듯하다는 앞부분의 견해를 뒤집는다. 이어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논점을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동물도 인간의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지닌 듯하다는 견해로 글을 시작한다. 뒤에서 이 견해를 반박하므로 논증의 결론이 아니라 **반박할 견해를 제시하는 도입**이다. 글의 중심 생각은 ㉢의 근본적 차이에 나타나며, ㉤에서 동물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활동과 같게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② X: ㉡은 '즉'으로 시작하여 동물이 소리와 몸짓으로 감정을 나타내고 의사를 교환하는 듯하다는 내용을 덧붙인다. 이는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설명이다.

③ O: ㉢은 '그러나'를 통해 ㉠과 ㉡에서 제시한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이 비슷하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겉모습의 유사성에 머물지 말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동물이 소리나 몸짓을 한다는 관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사성을 인간의 언어활동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부정한 것이다.

④ X: ㉣은 동물의 소리가 생물학적 조건에 대한 반응이나 본능적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의 근본적 차이를 뒷받침한다. ㉤은 이를 바탕으로 '따라서' 뒤에 동물의 소리를 대화·토론·회의 같은 언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근거의 방향은 ㉤이 ㉢·㉣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을 뒷받침하고 이를 토대로 ㉤이 도출되는 방향이다.

NoteBase